

“외화 잡을 韓 브로 콤비”... ‘말모이’ · ‘내안의 그놈’



신년 극장가에 외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9일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신작 두 편이 동시 등판했다. 영화 ‘말모이’와 ‘내안의 그놈’이 역대급 브로맨스 콤비를 내세운다.

韓 영화 자존심 회복시킬 신작 두 편 동시 등판

며 관객들의 마음을 훔칠 전망이다. 먼저 ‘말모이’는 믿고 보는 배우 유혜진과 ‘범피도시’로 충무로를 들쭉인 윤계상의 조합으로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기대작이다. 지난 2015년 영화 ‘소수의견’ 이후 4년 만에 다시 봉치며 이미 신뢰감을 쌓은 브로 콤비다. ‘말모이’라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번 작품 역시 의미 있는 메시지와 울림을 선사하는 영화로 눈길을 끈다. ‘말모이’라는 제목은 주시경 선생이 남긴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로 조선말 큰 사전의 모태가 된 단어에서 따왔다. 이는 ‘사전’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자 국·중에서 사전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우리말을 모으는 비밀 작전의 이름이기도 하다.

영화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까마득한 판수(유혜진)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을 만

나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과 마음까지 모으는 내용이다.

유혜진과 윤계상은 각각 관수, 정환으로 분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수는 남매를 키우는 홀이비로 까마득하지만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와 허세를 지닌 인물이며, 정환은 식민 치하에서 우리말 사전을 만드려는 큰 목표로 작게는 아버지와 크게는 일제와 맞서는 조선어학회 대표다.

정환은 판수를 통해 비로소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는 ‘말모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열연이 어우러져 ‘말모이’의 감동을 완성한다.

반면 ‘내안의 그놈’은 ‘영혼 체인지’ 소재로 극장가에 웃음 폭탄을 투척할 전망이다. ‘내안의 그놈’은 ‘이제’ 판수(박

성용)과 ‘고딩’ 동천(진영)이 우연한 사고로 영혼이 뒤바뀌면서 벌어지는 웃음 대환장 파티를 그린 정통 코미디물이다.

진영과 박성용의 전에도 없던 연기 변신을 기대해도 좋다. 두 사람은 각각 동천, 판수 역할을 맡아 능청스럽게 ‘영혼 체인지’ 설정을 소화하며 반전 매력으로 스크린을 수놓았다.

1인 2역이나 다름없는 캐릭터를 맛깔스럽게 펼친 것 진영은 카리스마 넘치는 이제미를 박성용은 깜찍한 매력이 돋보이는 고딩을 연기했다.

진영은 숫기 없는 ‘이제’ 고등학생에서 박성용의 영혼을 장착한 자신감 넘치는 ‘인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라미란과 벨로, 액션 연기까지 다채로운 열연을 펼쳤다.

박성용은 특유의 카리스마는 물론, 한순간에 30년을 도둑맞아 억울한 심정을 순진무구하게 연기해 코미디적인 재능을 확인시켜줬다.

‘너목보6’, 역대급 미스터리 싱어들과 돌아온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역대급 미스터리 싱어들과 함께 돌아온다.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에 첫 방송될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6’(이하 ‘너목보6’)는 직업과 나이, 노래 실력을 숨긴 미스터리 싱어의 몇 가지 단서만으로 실력자인지 음치인지지를 가리는 대반전 음악 추리

쇼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 시집을 시작으로 올해 시즌6까지 ‘너목보6’는 매 시즌 화제성을 일으키며 숨어있던 수 많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루마니아, 캄보디아, 슬로바키아 등 전 세계 9개국에 판매되어 글로벌 음악 예능의 위엄도 뽐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이 ‘너목보6’에 열광하는 이유를 짚어준다.

놀라움의 연속! 충격과 짜릿함을 안기는 대반전 추리쇼!

매회 미스터리 싱어들을 오직 얼굴과 포즈, 립싱크 연기로만 판단해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파악해야 하는 ‘너목보6’는 게스트들과 패널들 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함께 실시간

으로 추리할 수 있어 재미를 더한다. 또한 미스터리 싱어들의 정체가 밝혀질 때마다 상상 초월의 반전 결과로 짜릿함을 안겨 매주 금요일 저녁 본방사수를 부르는 중독성을 선사하고 있다.

실력지만 음악 하라는 법 있나? 음치 대환영!

‘너목보6’는 다른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과 달리 음치를 선호(?)하는 독특한 콘셉트를 가졌다. 오직 비주얼만으로 미스터리 싱어들의 노래 실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더라도 음악에 온몸을 맡긴 채 즐기면 된다고, 이에 음치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 폭소로 하나 되는 진풍경이 인방극장에 빅 재미를 안기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는 또 어떤 최고(?)의 음치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매회 다양한 게스트들로 눈 호강! 1회 1초대 가수

시즌1부터 시즌5까지 수많은 초대 가수가 ‘너목보6’에 참여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호강하게 만들었다. 원벽(?) 파이널 듀엣 무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미스터리 싱어들의 정체가 밝혀질 때마다 변하는 표정은 색다른看点 포인트가 되고 있다.

MBC와 패널들과의 꿀 조합 역시 제공해 앞으로 다가올 ‘너목보6’에서 어떤 화려한 게스트들이 나와 웃음 폭탄을 날릴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이처럼 ‘너목보6’는 전 시즌과 다른 어떤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킬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다. ‘너목보6’의 연출을 맡은 황나혜 PD는 “‘너목보6’는 지난 시즌보다 더 짜릿한 반전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리로 돌아올 예정이다. 오감을 뛰어넘어 육감을 만족시키는 재미를 드리겠다”며 낱다른 각오를 전하며 달릴 ‘너목보6’의 특별한 첫 만남을 예고한다.

한편, 대반전 추리쇼 프로그램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6’은 1월 18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된다.

‘프리스트’, 명작과 망작의 갈림길에서



‘프리스트’가 명작과 망작의 갈림길에 섰다. OCN 토일극 ‘프리스트’는 흥행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걷는다. 천주교 구마 의식을 소재로 결출한 작품성을 뽐낸 ‘더 게스트(손 the guest)’가 시청자의 눈을 한없이 높여 왔다. ‘프리스트’는 기본 중의 기본도 충족하지 못한 완성도로 시청자의 붓대를 맞았다. 천주교와 개신교도 구별하지 못해 신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개연성 없는 억지 전개를 하는 것 등에 지적받았으며 시청률도 최저 1.4%(닐슨코리아, 전국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까지 떨어졌다.

그 와중에 6일 12회 방송 이후 ‘프리스트’가 갑자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았다. 지금까지의 전개 중 75%에 해당하는 8회 분량이 극 중 연우진(오수민)의 무의식이었던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4회에서 레지던트 박정원(송미소)의 무의식에 들어가 정유미(함은화)와 한 키스 박용우(문기선 신부)의 죽음, 연우진·정유미의 과거 인연 등 모든 것이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악령이 연우진에게 보여 준 꿈이었다.

시청자의 반응에는 온도 차가 있다. 한 시청자는 “4주 동안 속은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많은 사람이 드라마 ‘파리의 연인

(2004)’을 언급했다. ‘파리의 연인’은 박신양과 김정은의 러브 스토리가 사실은 김정은이 쓰는 시나리오였다는 결말로 끝나며,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결말’이라는 오명을 남

겼다. 김은수 작가도 후회하는 일종 하나로 꼽을 만큼 파장이 어마어마했다. 그 때문에 ‘프리스트’ 역시 작가의 망작이라는 시각이 있다.

“소를 들었다”는 등 호황을 보던 시청자들은 우선 박용우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또한 역설자가 고구려에 놓여 있다는 점, 문숙이(혜민) 수녀가 알려 준 수녀의 기도(연우진이 믿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점, 연우진의 파문 소식에 정유미가 기뻐했다는 점 등 연우진이 꿈속이라는 복선이 곳곳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탄탄한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한 시청자는 “영화 ‘인셉션’의 한국 드라마 버전”이라며 신선한 발상을 높게 샀다.

특히 단 4회 만에 이를 수습하고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프리스트’의 가장 큰 리스크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반전은 기획 단계부터 정해져 있었던 점이다. 무의식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앞으로 남은 전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귀띔했다. 이를 잘 풀어 간다면 모험 정신이 빛난 드라마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방송 관계자는 “너무 큰 희망이었다. 이미 꿈이 나오는 8회 동안 시청률이 상당히 떨어졌다. 마무리를 잘하면 다행이지만, 못하면 시청자 뉘우수만 친 망작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모두의 주방’, 정규편성 확정...색다른 食예능 통했다

소셜 다이닝 예능 ‘모두의 주방’이 정규 편성을 확정했다. 9월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올리브 예능 프로그램 ‘모두의 주방’이 정규 편성을 확정했다. 오는 2월 말 정규 첫 방송 예정이다. ‘모두의 주방’은 내만의 특별 레시피와 먹튀, 누군가와 공유하고픈 요리, 요즘을 사는 우리 이야기로 인생의 한 조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 초연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고 음식

을 먹으며 소통하며 친해지는,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인 소셜 다이닝을 콘셉트로 했다. ‘모두의 주방’은 특히 ‘강식당’, ‘섬총사’, ‘한식대첩’ 등을 통해 실력을 갖고 닭은 강호동의 본격 요리 예능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군에서 갖 전역한 광희가 합류해 유쾌한 케미를 완성했다. 여기에 이창아, 광동연, 미아키 사쿠라(아이즈원)이 첫 손님으로 출연해 눈길이 모아졌다.

지난달 29일 시범 방송된 ‘모두의 주방’은 소셜 다이닝 분야의 취지를 잘 살린 포맷과 의외의 라인업이 만들어 낸 신선한 케미로 시청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음식이 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잘 조화시켰다는 평가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한 ‘모두의 주방’이 또 어떤 웃음과 감동이 담긴 식탁을 차려낼지 궁금해진다.



오늘의 순세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음력 12월 5일)



▶**경조**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사는 것은 힘든 인연이다. 두 사람이 진실하게 합심할 때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 금전 융통은 혼자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할 때 성과가 있겠다. 5, 7, 10월생은 투자에서 이익 볼 수.



▶**경계** 재주는 많은데 쓰이지 못한다고 한탄하지 말라. 때가 되면 뜻은 이루어질 테니 조금씩 기다려라. 기대하는 가운데 운이 오겠다. 짝사랑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곧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경애** 한 번 해본 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은 먹어보고 나쁜 일은 다가오니 조심할 것. 북쪽에서의 유혹을 받아들이다가 큰 후회 속에 살 수 있겠다. 1, 2, 9월생 눈물이 많으니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지 말 것.



▶**경의**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할 것. 오랜 세월 물담은 곳에서 대책도 없이 변한다면 한동안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자기 수양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자식 문제를 철저히 다루는 것이 좋겠다. 자율성도 지나치면 방종이 될 수 있다.



▶**경미**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내일을 기하자. 가정이 안정돼야 사회 활동도 원만해진다. 부부간 진실한 마음을 보여야 일이 순조로울 수 있음을 상기할 것.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일을 진행하라.



▶**경신** 한 가지를 계획했다면 그 일이 모두 실패한 다음 다른 일에 손을 대라. 끝을 맺어야 결과가 좋은 법이다.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이것저것 해 봐야 마산가지니 속 마음이 타겠다. 운도 별로니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이 낫다.



▶**경유** 사업이다, 사랑이든 내 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할 지혜가 필요하다. 매해 계약은 충분히 검토한 뒤 중요한 안전을 해결하라. 기, 자, 초 성씨는 현역이 길하다. 오늘은 몸이 한 가롭지만 앓을 듯. 인 3~4역을 해야 하는 분주한 날이다.



▶**경축** 어려운 일들이 해소되고 바라던 바가 이뤄지니 더욱 더 지혜롭게 노력하면 결실할 운. 지금의 어려움에 개의치 말고 힘껏 도전하라. 1, 2, 9월생은 애정의 눈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으니 자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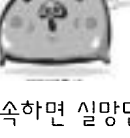
▶**경해** 주변의 민선 사람들과 하나 둘 헤어질 운이다. 3, 6, 8월생은 훌가분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미래에 웃는 얼굴로 해후할 수 있다. 그동안 배운 덕을 그들도 알 것이니 본인의 자제로 현실에 임할 것. 외로운 심정을 잘 추스르라.



▶**경인** 길이 두 곳에 있으니 우왕좌왕하나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결정함이 좋을 듯. 기, 오, 자 성씨는 불운 탓에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 욕심을 자제하라. 3, 4, 12월생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 낫겠다.



▶**경묘** 참을성이 많고 인정도 많지만, 배운 만큼 덕이 없다. 기, 3, 8월생은 예기치 않던 일로 먼 길을 떠나겠다. 동북쪽이 길, 녹색과 파란색이 행. 오, 자, 비 성씨가 돕겠으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킬 것.



▶**경진** 처음에는 하는 일이 잘 진행하는 것 같아도 좀처럼 결실이 없다. 기, 5, 8월생은 마음고생이 돼도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쥐, 말, 닭이 말을 들을 것. 기, 비, 표 성씨는 남쪽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 관계를 지속하면 실망만 커진다.